

국민에게 다가서는 건축, 건축사협회

KIRA Brings Architecture Closer to the Public

Focus

얼어붙었던 땅이 숨을 쉬고, 새 싹이 돋아나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동물들이 기지개를 켜듯이 우리 건축사들도, 협회도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할 때이다. 우리는 그동안 쓸데없는 곳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왔다. 이제 우리끼리 아웅다웅 할 때가 아니다. 반목과 질시의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미래를 향한 출발선에서 건축의 진정성과 함께 건축사와 협회의 존재의미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누구를 위한 건축인가

우리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더 왜곡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건축을 문화와 예술적 가치로 인정해 주지 않는 세대를 원망하기도 한다. 물론 건축이 인간의 삶을 담는 공간을 창조하는 행위인 만큼 그 자체가 문화이고 창작예술로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만큼 사회의 속성을 두루 내포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은가. 이런 이유로 '건축은 시대의 거울' 이라고 말한다. 이는 건축물이 그 시대의 사회상이나 기술, 정신, 예술, 생활 관습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그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은 저 높은 곳에서 고고한 척 품을 재고 있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형이상학적이거나 관념적인 가치만을 추구할 수도 없다. 그저 그럴듯하게 내세우고 보여주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건축물 안에서 실제 생활할 거주자들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부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쉽고 친근감과 편안함을 주는 건축, 즉 사람을 위한 인간 중심의 건축이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상식이 통하고 기본에 충실한 건축을 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

대국적인 차원의 협회로 발돋움해야

나이를 먹을수록 가까운 것 보다는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는 법이다. 우리 협회는 이제 40살 장년기에 접어들었다. 연륜에 걸맞게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자세와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우리끼리의 협회였다면 앞으로는 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세계(밖)를 향해 나아갈 때 국운이 융성하고,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며 내부적으로 갈등할 때 국운은 쇠퇴했다. 변화를 두려워말고 열린 마음으로 두 팔을 벌려 외연을 넓혀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회장은 대내적인 일보다 대외적인 역할에 치중하고 우리 건축사의 영역, 업역을 넓혀나가야 한다.

- 협회는 국민적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건축연구소 설립 및 전문위원회 도입 등)
- '사랑의 집짓기' 참여, 건축 상담, 분쟁조정, 건물 안전진단 및 예방, 재해복구 등 대국민 봉사활동을 강화한다.
- 건축사와 협회의 존재가 새롭게 인식될 수 있도록 대외 홍보를 강화한다.
- 산업계, 관계, 학계와의 원활한 협동과 국제 교류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
- 건축 관련 문화행사 즉, 건축 작품전, 건축 사진전, 건축 모형전시회 및 모형제작 체험교실 운영, 각종 공연 등을 주관하거나 후원하여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건축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회원가입의 문호를 넓혀 사무소 등록건축사 위주에서 자격 면허를 가진 전체 건축사를 대상으로 정회원을 확충하고 예비건축사, 건축과 교수 및 학생 그리고 건축 관련 공무원과 기타 희망자에게 명예회원 또는 준회원 자격을 부여 대한민국 건축계의 전반을 아우르는 건축전문가단체로 광의적 협회를 구상해야 한다.
- 시대가 바뀌면 조직도 달라져야 한다. 건축사협회가 회원관리 및 권익보호 차원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건축문화의 전파자로, 사회적 공공성에 기여하는 공익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대국민 서비스 강화로 협회와 건축사의 위상을 다시 찾자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건축사라는 자격하나로, 대한건축사협회라는 조직하나만으로 행세를 하던 시대는 지났다.

국민을 고객으로 받들고 최상의 건축 서비스와 AS까지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뢰가 쌓이고 인정받는 건축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런 회원이 구심점이 된 협회 또한 강한 협회, 미래가 보장되는 발전성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가 건축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에 앞서 이 시대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축인으로서 자존을 지켜내며 건축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무주택자 또는 달동네 영세민들의 주택문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용도변경과 건축법의 무지로 발생하는 무단 증개축 행위, 각종 건축 관련 분쟁으로 인한 피해사례, 건축 관련 환경문제 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기여해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진정한 건축을 추구하고 국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우리 건축사가 살고 협회가 사는 길이다. ㄷ